



DIGITAL DESIGN_XEFIROTARCH/PAVILLION SEROUSSI, STOCKHOLM, PS1 MOMA "SUR", SANGRE ORTLOS/AUSTRIAN EXPO PAVILION
2008, SCHLOSS RETZHOFF-GUEST HOUSE F-U-R/LUMEN, SKYWALK NEW PROJECT_OPTICON HAMBURG, INAGIKU RESTAURANT/FOU
SEASONS HOTEL, MODERN CHINA BUNDANG, SUPPERCLUB ISTANBUL DESIGN VIEW_CHANEL CONTEMPORARY ART CONTAINER
PROJECT TO SURFACE, UOME DESIGN 33TH ANNIVERSARY & C.I PRESENTATION, IFI 2007 BUSAN

Linden Apotheke Ludwigsburg

린든 아포테케 루드비히스부르크

Design: Ippolito Fleitz group - Peter Ippolito, Günter Fleitz, Sascha Kipferling, Tim Lessmann, Fabian Greiner, Axel Knapp, Sarah Maßelken www.ifgroup.org

Graphic Design: Monica Trenkler **Location:** Körnerstr. 19, Ludwigsburg, Germany **Build Area:** 110m²

Floor: Dispensary - Granite Cobblestones, White Epoxy Resin Back Office - Linoleum / Wall Dry Wall **Photograph:** Zooey Braun

Client: 이폴리토 플라이츠 그룹 - 피터 이폴리토, 귄터 플라이츠, 사스차 키퍼링, 팀 레스만, 파비안 그레이너, 악셀 크넵, 사라 매셀켄 **www.ifgroup.org** 모니카 트렌클러

Address: 독일 루드비히스부르크 코르너 스트라세 19 **면적:** 110m² **시공:** 바닥-조제실-화강석, 화이트 에폭시 수지 비영업부문-리놀륨 / 벽체-건식벽체 **사진:** 주이 브라운



The Linden Apotheke is an old-established pharmacy in Ludwigsburg. It has chosen to specialize in naturopathic products and natural cosmetics in response to the growing pressure of competition in the pharmacy market. The remodeling of the pharmacy's interior serves to underscore and substantiate this positioning. The task was to create without a superficial, promotional style.

A rigorous reorganization of the space resulted in a compact, high-ceilinged room, which is immediately ascertainable from both entrances. Continuous shelving units and the room's rounded corners support this impression. They establish a clear backdrop for the merchandise on display, which is well lit, both from behind and from the front. A spatial focal point is created by the new sales counter, attached to a central supporting column and projecting freely out to both sides. The unity of the room is further accentuated by a rounded transition from wall to ceiling, as well as by the continuity created by the white coloring. The granite cobblestone floor reflects the typical Baroque style, so evident in the town of Ludwigsburg, and creates a tantalizing contrast to the otherwise demonstratively modern interior design. Three rotatable merchandise stands in the centre of the room offer an additional area for presenting and highlighting seasonal products.

With its clear, sweeping contours and monochrome color palette, the room and furniture design direct the customer's eye towards an expansive ceiling motif. Serving as a strong key visual, the motif is a fresco depicting eleven medicinal herbs, which was designed in cooperation with textile designer, Monica Trenkler. It is a modern interpretation of a traditional subject, executed in classic colors. The ceiling design acts as the new emblem of the pharmacy - both in a spatial and communicative sense. The modernity and clarity of the design establish a connection to professionalism, precision and competence. The idea was to create an engaging, optimistic ambience in which all the worries of ill health can melt away for a moment.



© ZOOEY BRAUN



© ZOOEY BRAUN



© ZOOEY BRAUN_General sale 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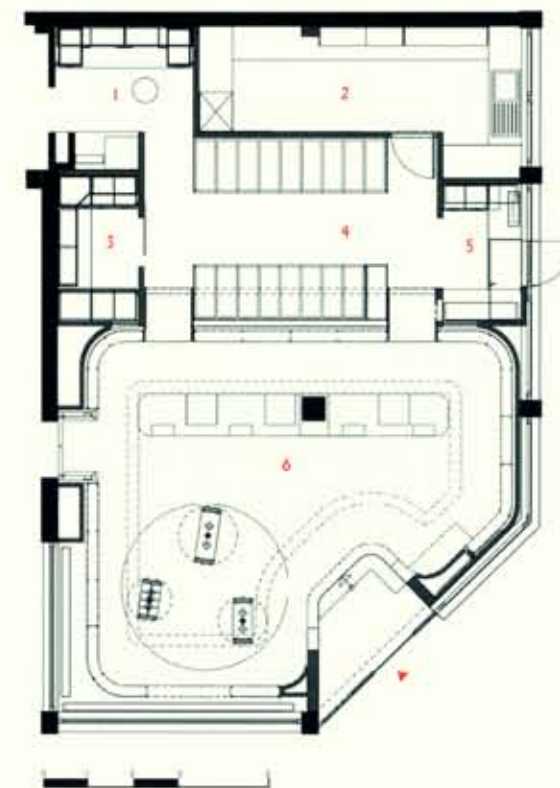
LINDEN APOTHEKE
LUDWIGSBURG



© ZOOEY BRAUN_Sale room viewed from entrance



- 1. Letter place
- 2. Laboratory
- 3. Dispensing
- 4. Closet room
- 5. Office
- 6. Sale room



Floor plan



© ZOOEY BRA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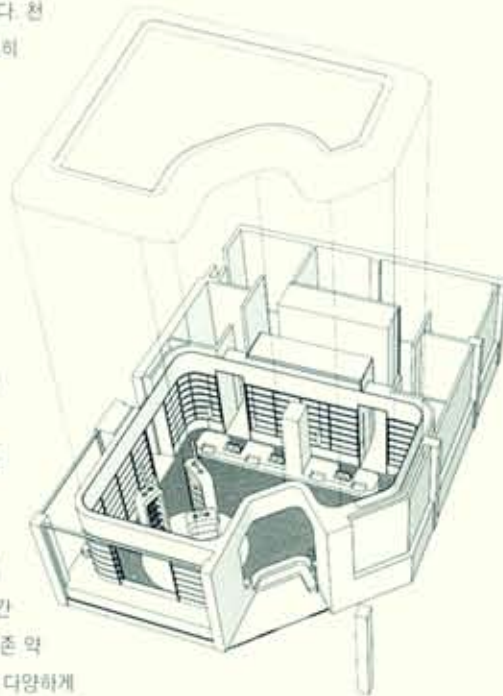


© ZOOEY BRAUN_Displayed in the store

약국을 떠올렸을 때 우리는 약 제조와 그 약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장소 정도만 생각한다. 또한 약국의 공간 디자인적 개념은 다른 공간들에 비해 단순하게 그려져 대부분이 지루함을 느끼고 각 약들의 특유의 냄새로 가득 찬 공간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진부함을 지닌 약국들도 다른 공간들처럼 디자인 개념은 추가된다면 색다른 모습을 가진 곳으로 탄생될 것이다. 이렇듯, 새롭게 디자인적 약국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런던 아포테케가 독일 루트비히스부르크에 위치해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있다. 이곳은 작은 공간의 약국을 디자인적 요소를 접목시킨 신선한 공간으로 발전시켜 의미있는 장소가 되고있다.

런던 아포테케 약국은 높아져만 가는 약국시장의 경쟁력에 대응해 자연 치유 방법 관련 상품과 자연 화장품 전문으로 다루는 곳이다. 이곳은 약국의 실내 개조 작업을 통해 약국의 위치를 강조하고 새로운 모습으로의 공간을 구현해내어 일반적인 판촉공간의 모습에서 벗어나도록 설계되었다. 두 개의 출입구 중 패장으로 들어서는 입구를 통해 내부로 들어서면 엄격한 재구성을 통해 탄생되어 천장고가 높은 형태로 조밀하게 구성된 공간을 만날 수 있다. 공간에서 연속적으로 보이는 선반과 곡선 처리된 실(室)의 귀퉁이는 이곳의 전체적인 인상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천장으로부터 시작해 부드럽게 이어지는 벽은 통일감을 더욱 강조하며, 화장감 조약돌로 마감된 바닥은 루트비히스부르크라는 장소에 걸맞는 전형적인 바로크 양식을 반영한다. 그와 달리 외부는 현대적으로 설계된 실내와 비교한 대조를 이뤄 보는 이로 하여금 이곳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한다. 실의 중앙에 놓인 세 개의 회전 진열대에는 계절상품을 추가로 진열해 눈에 쉽게 띄도록 계획되었다. 공간에서 크게 구성을 이루는 실과 가구설계는 전체적으로 깔끔한 윤곽선, 흑백 색상과 함께 고객의 시선을 날렵한 천장의 모티브로 유도한다. 천장의 모티브는 섬유 디자이너인 모니카 트렝클러(Monica Trenkler)와 함께 작업해 11개의 약용 식물을 프레스코 화법으로 그려내, 전통적인 주제를 현대적인 해석을 거쳐 고전적인 색상으로 표현되었다. 이에 천장에 그려진 모티브는 현대적이고 명쾌한 디자인으로 강한 시각적 요소로 작용하며 전문성, 정확성, 능력과의 연결 고리를 형성하며 신뢰움을 부가시킨다. 또 이러한 요소는 병에 대한 모든 걱정을 한 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쾌적적이고 낙관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본어 더욱 의미가 깊다.

이곳은 허안 도화지에 가벼운 디자인을 그려놓아 뭔가 특별한 신선함을 가득 채운 듯하다. 특히 공간의 소품이라고 할 수 있는 약들이 갖고있는 각 특유의 색상과 상표, 디자인이 공간의 디자인 요소로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색채감을 높여준다. 각 약들이 지닌 특징들을 허안 공간에서 눈에 띄는 컬러감을 보이며 하얗게 드러워진 공간에 한쪽의 수채화를 그려놓은 듯하다. 또한 벽과 천장 속에 그려진 이미지는 약국에서 하나의 식물이 마치 꽃을 피운 듯 건물을 자연스럽게 오르는 양상으로 보이는 착각으로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해 공간에 대한 편안함과 순수함을 동시에 연출한다. 동근형태의 선들은 부드러운으로 분위기를 즐겁게 연출해 기존 약국과의 큰 차이점을 보인다. 이곳은 디자인이라는 요소가 공간 연출에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어느 곳에서나 다양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적절한 예가 될 것이다.



Isometric



© ZOOEY BRAUN_Cashier area